

교 훈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수운교보

• 발행 인: 총무원장 양 원 흥  
 • 편집 주 간: 부총무원장 김 옥 현  
 • 발행 처: 수 운 교 본 부  
 • 발행 소: 34059 대전시 유성구 지운로 245번길 80(추목동)  
 • 창 간 일: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 화 / 팩 스: (042)861-1771·862-9436/862-1772  
 • 인 쇄 처: 삼성디자인기획 (042)221-3111  
 • 홈 페 이 지: http://www.suwoongyo.or.kr



제40대 양원흥 총무원장 취임



3월 1일, 김석주 법사원장 · 윤영진 감리원장 삼원장 동시 취임으로 본부 새 출범

취임사



양원흥 총무원장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날씨도 냉한데 더구나 신종 코로나 감염병이 극성하여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서 이 자리에 동참하여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은 독립만세운동 10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우리 민족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 왜병의 총칼에 무참하게 학살당한 일본의 잔인한 만행을 자손만대에 잊지 말아야 하며 무력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독립을 쟁취하려고 맨손으로 항거했던 우리 선조 순국열사들의 드높은 기상을 우리들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뼈아픈 역사 앞에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3월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단의 전통을 끝까지 지키려다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르며 순교하신 원로 동덕 영령들의 참 뜻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을 해야 할 것인지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수없이 많은 교단의 존폐 위기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동덕 여러분의 일심동령하며 연면히 쌓아 놓은 이성단에 비재박덕하고 미려한 제가 막중한 책임을 맡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동덕 여러분에게 송구하옵고 또한 감사하오며 한편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무엇보다 앞서게 됩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김덕환 총무원장께서는 묵묵히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선친의 투철한 신앙심을 이어받아 우리 수운교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교단의 제반사항을 수습하시고 우리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켜 평정심을 심어 주셨고 교단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교단에 큰 발전을 도모하리라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는 임기를 마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험으로 쌓아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교단 발전에 적극 힘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런 훌륭한 분을 놓치고 미약한 저를 동덕 여러분 앞에 세웠으니 제가 감히 우리 교단의 염원하는 초석을 이룰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하오니 동덕 여러분께서는 맵고 쓰디쓴 충언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하오며 저는 동덕 여러분들이 그려내고 있는 그림을 묘사하여서 더 크게 확대하고 세밀하게 덧칠하여 생동감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갈 것이오니 저의 머릿속 하얀 도화지에 그림들을 많이 채워 주십시오.

천사님께서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같이 들으시며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헤아려 보시고 우리들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십니다.

천사님께서도 이곳 성지인 이 도량을 연화부수 즉 연꽃이 물 위에 피어 오르는 지형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연상하여 새겨 보면 우리들은 한결같이 이 도량 안에서 연꽃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동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꽃은 청정하고 신성하고 순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님께서 여운으로 남기신 화두는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을 멀리하여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결하고 청정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원만하고 화평하여 향과 같은 덕을 쌓을 것이며 유연하게 맑고 밝은 마음으로 선행할 것이며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기품있고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진정한 연꽃이 되어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미 동덕 여러분은 이에 부응하여 진정한 연꽃이 되려고 많은 수련을 통하여 정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개개인의 생활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즐거움 자체가 다르므로 꼭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에 대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공자님, 맹자님의 인생삼락을 말하기 전에 우리들은 천사님께서 훈유하신 믿음에서 즐거움을 갖자는 의미로 “신심삼락”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 일심동령입니다.

천사님께서도 훈법에서 일심동령을 강조하시고 열 몸이 한 몸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인여천을 실행하는 동덕이니 어떠한 차별이나 구분 없이 오직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수운교를 사랑하는 한 몸 되면 만화귀일 기틀되어 지상천국 이뤄지고,

둘째 : 경수사훈입니다.

천사님의 훈법을 공경스럽게 지녀서 잘 실행하면 도덕군자 이아닌가? 셋째 : 성경신입니다.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염염불망 행신하면 광명정대하여 삼계에 부끄럼 없으니 이 아니 기쁘지 아니할까?

삼락으로 생활하여 도성덕립, 삼대원성취, 만화귀일로 지상천국 이뤄내는 오만년의 새세상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모든 중생을 청정케하고 옹호하며 이 땅에 정토를 실현하고 국토를 지키

며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천만 사람이 한 몸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천사님의 뜻을 받들어 지금부터 일심동령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천사님 탄강 200주년과 개교 100주년 기념을 앞두고 있기에 교인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끝으로 교인 여러분 가정에 불천사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강 199(경자)년 3월 1일  
 총무원장 통호 양원흥 합장



### 삼원장 취임식 거행

수강 199년 3월 1일(일요일) 오전 9시에 수운교 제39대 김덕환 총무원장의 이임식과 제40대 총무원장 및 삼원장의 취임식이 본부 도솔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고 경건하게 치루었다.

지난 1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 임시의장을 맡았던 비호자 강서조 고문은 “오늘 경건하고 엄숙한 이·취임식 전에 제40대 총무원장과 38대 법사원장, 24대 감리원장 그리고 삼원의 부원장님들께 임첩(당선증)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맡은 임기 동안 교단의 발전을 위해 성경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총무원장을 비롯한 삼원장과 부원장께 총회회장 명의로 임첩을 수여하였다. 양원홍 신임총무원장은 불천사(佛天師)님께 고하는 고천문(告天文)을 통해 도솔천 만화귀일 청정용호지 도량에서 “지극정성으로 삼대원의 속득성취를 위해 천명을 받들 것을 신임 임원들과 취임함을 고하오니 굽어살펴 주시옵고 수운교의 모든 임직원이 성경신(誠敬信)을 다하여 봉직할 것을 굳게 맹세하옵니다.”라고 고천문을 봉독하고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어 양원홍 총무원장은 새로 선임된 총무원의 임직원과 법사원의 법사, 감리원의 부장, 부녀회장에 임첩을 수여하였고 임직원 선서가 있었다.

전임 김덕환 총무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에 교단의 발전을 위해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취임하시는 총무원장의 건승과 교인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신임 양원홍(梁元洪) 총무원장 약력

1947년 5월 19일, 제주출생, 통호자.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안덕지부(청정암)에 다니며 신앙을 하였고, 공직생활 중 신천지부와 인연이 되어 수강157(1978)년 1월 15일 지부 총무로 근무.

당시 지부장인 최창진 법사와 서진림 창건주를 도와 지부의 법회당 증축에 주력하였으며, 수강173(1994)년 4. 15. 지부 정위사, 수강193(2014)년 4. 15. 지부장을 역임. 이후 서옥선 전지부장의 성금으로 객실 1,2층(80평)을 개축하는데 협력하였으며, 수강 194(2015)년 2. 5. 감무원장으로 피선되었음.

#### 취임사



법사원장 공호 김석주 합장

존경하는 교인과 가족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에는 교인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성취되는 해가 되길 천사님께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정기총회에서 법사 원장에 재추대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단 발전에 성경신을 다 하라는 천사님의 뜻이라 생각되어 한 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신을 다 할 때 자연히 모든 행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치요 도인 것입니다. 도는 세속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천도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사님의 뜻을 받들어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운산만리(雲山萬里)고 고월독조(孤月獨照)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이 흩어지면 달은 절로 드러난다는 뜻으로 시비 분별을 다 벗어버리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말로 “나와 주위에 덮고 있던 모든 자만과 욕심 등의 어두운 구름이 흩어지고 새로운 모습의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교인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삼대원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두가 바라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다 함께 한다면 불천사님께서 교인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가정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불천사님께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법사원장 공호 김석주 합장

### 제39대 총무원장 이임사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그리고 삼대원 속득 성취를 위해 불철주야 성경신을 다해 헌신봉공하고 계시는 지부장님! 그리고 임직원 및 교역자 여러분!

오늘 저는 3년간 제39대 총무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도솔천에서 이임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중에 교단의 내실을 기하고 교인들의 수행을 배가 시키고자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했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양원홍 총무원장님께서서는 그동안 깊은 기도와 수행을 통해 도와 덕을 두루 갖추시고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교인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거운 짐을 받으신 양원홍 총무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늘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 교단 일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교인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천사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수강 199년 (경자) 3월 1일

윤호 김덕환 합장



총무원장 윤호 김덕환 합장

#### 취임사

모시고 안녕 하십니까?

추운 겨울을 뒤로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수선한 시국에 우리 수운교엔 새봄을 맞이하며 새로 선출된 임원들께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도(道)가 높고 일도 열심히 하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번 총회에서 선출되어 취임하게 된 감리원장 입니다.

아직도 저는 무슨 글을 올려야 할 지 망설이며 서툴게 몇 자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성경신과 수심정기로 수련수도하여 태극성을 깨달아 도덕군자가 됩시다. 그동안 감리원 일을 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삼원이 협력하여 수운교 발전에 도모하고, 우리 모두 수운천사님 가르침에 한 점 부끄럽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같이 덕을 쌓아가는 교인으로서 성덕군 나옹 불사님의 좋은 글 몇 자 옮겨 보겠습니다.

“청산은 말없이 창공은 티 없이 사랑도 증오도 성냄도 탐욕도 벗어 놓고 바람같이 물같이 살라 하네” 하였습니다.

우리도 낮은 자세로 조금씩 내려 놓고 수행을 한다면 수련수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덕 여러분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삼합대도로 삼대원 성취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합시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수운천사님의 가호지 원력으로 만사형통하시어서 가내가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리원장 명호 운영진 합장



감리원장 명호 운영진 합장



김옥현 부총무원장



박신규 부법사원장



이상연 부감리원장

### 3.1절 유시극종 영가 위패봉안 및 위령재 봉행



수강 199(경자)년 3월 1일(일) 오전 10시 본부 법회당에서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행사를 축소하여 일부 교인들만 참여한 가운데 3·1절 순국선열과 유시극종 영가 위패봉안 및 선망 부모조상 위령재를 봉행하였다. 유시극종 영가 54위와 일반위패 13위 등

총 66위의 영가가 향사록에 등재되고 위패가 봉안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남 2309영가와 여 1378위 영가 총 3687위의 영가가 향사록에 등재되고 위패가 봉안되었다. 금년에 봉안된 영가는 봉령군대인 김관열, 박창희, 이명우, 박원규, 김태운, 신동구, 이남규, 이종구, 유재호, 강유진, 오태연, 양후은, 박만용, 변문호, 박기용, 신재덕, 학선군대인 길시찬, 최원구, 조태완, 장창덕 그 외 김지택, 이홍중, 홍덕기, 조진우, 고재남, 김창문, 김재연, 백낙중, 백홍민, 한동훈, 배선영, 여국정, 김홍식, 학선군부인 박덕옥 양남순, 김덕실, 양복자, 김복동, 박선옥, 신순하, 문경생, 양순호, 양순성, 손달순, 윤정생, 홍남근, 이덕오, 태문희 문창생, 문을남, 강계화, 유종순 등이며 일반향사 송덕수, 송병열, 나두옥, 양원보, 이귀동, 박종문, 이영호, 김일순, 박순임, 광주김씨, 김해김씨, 김신춘 등 이용월 13위이다. 특히 이날 위령재 행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인들의 참배를 자제하고 행사를 축소하여 일부 교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성껏 봉행하였다.

### 수강 199년 임원 정기총회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 본부 법회당에서 임직원 정기총회가 있었다. 대의원 총 77명 중 63명이 참석하였으며 성원보고 후 개회선언 명축분향에 이어 총무원장의 개회사 교무부장의 교황보고, 감리원

장의 감사보고, 재무부장의 19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199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 납골당 설립 추진위원 구성 등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다. 이어서 강서조 고문을 임시의장으로 위촉하여 임원 선출투표를 실시하여 40대 총무원장에 양원홍 제주감무원장이 선출되었고 38대 법사원장에 김석주 헌법사원장이 재임되었으며 24대 감리원장에 윤영진 현 부감리원장이 선출되었다.

총무원의 각 부장과 임원 감리원의 각 부장 법사원의 법사 등은 총회의 승인에 전례에 따라 신·구 3정부원장의 협의로 선임하여 교헌 제71조에 의한 총회의 인준을 같음하므로 선출 선임된 임원들은 교헌에 따라 오는 3월 1일 도솔천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 봉령군대인 달호 변문호 고문 환원



지난 2월 15일 (음 정월 22) 새벽에 변문호 고문이 환원하였다. 변 고문은 수강 112년(계유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908번지에서 원주변氏 시조 고려원부군 안열공의 19대손으로 엄부 평성대인(平誠大人) 평흠(平欽), 자모 학선군부인 제주 고인아(高仁兒)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근면과 검소의 성경신으로 언행일치를 생활 신조로 삼았다. 수강 129년(경인) 18세의 나이로 수운교에 입교하여 교역자 과정을 이수하고 수운교 수산지부 정위사, 지부장, 제주감무원장, 제31대, 32

대, 34대 수운교 총무원장과 초대 재단법인 이사장을 역임하여 70여년을 모든 교인들의 귀감이 되어왔다.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에 수운교 복지관 건립, 사무실 개조, 공설묘지 조성, 금강담다라니 복원, 재단법인 설립, 수운교 진리, 수운교 경전 등을 출판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는 겨레얼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 민족종교협의회 부회장, 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가족으로는 고 학선군부인 남양 흥인운 사이에 2남 3녀를 두었는데 동만, 태엽, 승례, 승순, 승연 모두 분가하여 성교인으로 신앙하고 있으며 수운교 수산지부 교인들은 법당도량 내에 송덕비를 세우고 지부 중흥발전에 기여한 공덕을 기리고 있다.

고인의 영결식은 2월 17일(월) 오전 7시 수산지부 도량에서 수운교 제주감무원 장(葬)으로 치루었으며 세찬 눈보라 속에서 김덕환 총무원장을 비롯한 본부 조문단과 각 지부장

및 많은 교인들의 애도 속에 양원홍 감무원장의 영결사, 김덕환 총무원장의 추도사, 홍석반 동덕회장의 조사, 수산지부 김성주 법사의 약력보고와 헌화, 헌작, 유족대표(장남 변동만)의 인사 순으로 영결식을 봉행하였다.



### 임직원 현황

구분	성명	
총무원	원장 : 양원홍	부원장 : 김옥현
	교무부장 : 김국환	의전부장 : 송선호
	재무부장 : 김석기	사회부장 : 김광석
	교회부장 : 정이순	사업부장 : 석월섭
	경위사 : 이태화	정위사 : 김승천, 오영순
	정필사 : 문제현	서무과장 : 김미라
	공양주 : 최오목	
법사원	원장 : 김석주	부원장 : 박신규
	사무부장 : 김덕부	
	법사 : 이계찬, 박남형, 최재봉, 이홍우, 이승주, 임성수, 이규택, 서상유, 김정복, 김범주, 김명찬, 김철수, 이종찬, 이순규, 정기백, 민병환, 김석보, 송규섭, 이찬구, 안상열, 오창만, 지재현, 오동구, 문이섭, 오형범, 김영기, 윤병학, 석영일, 문지현, 이승용, 문충식, 이장성, 김현철	
감리원	원장 : 윤영진	부원장 : 이상연
	감사부장 : 조대연	심리부장 : 박기완
법인임원	이사장 : 정기종	
	이사 : 김국환, 김성주, 김석기, 김승갑, 안상열, 윤현진, 박영길	
	감사 : 조대연, 박기완	
단체장	신도회장 : 박남형	부녀회장 : 이경례
	봉사단장 : 정기백	제주동덕회장 : 공석

전호 : 제3장 명보안지의 1편이어  
제3장 2편 제4장 명공성대업편을 기재합니다.



# [훈법대전]

## 제3장 明輔安之意 명보안지의

### 보국안민의 뜻을 밝힘

2 근선정기심서하며 정양기화하여 일용백반이  
 先正其心緒 正養氣化 日用百般  
 양불괴우신지하여 심광체건하여 화급만방이 시 |  
 仰不愧于神祇 心廣體建 化及萬方 是  
 보국안민이니 상찰천리하며 하수인심하여 흡화증민하면  
 保國安民 上察天理 下收人心 洽化蒸民  
 성위갱명하고 운도역태하여 만방이 시녕의리라  
 星緯更明 運度亦泰 萬方 是寧矣

먼저 그 심서를 바르게 하며 기화정양하여 날로 쓰는 백  
 가지가 신지에게 부끄럽지 아니하여 마음이 너르고 몸이  
 건장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침이 이 나라를 보전하고 백  
 성을 편히 함이니 위로 천리를 살피고 아래로 인심을 거  
 두어서 증민을 흡화하면 성위(星緯)가 다시 밝고 운도(運  
 度) 또한 편하여 만방이 편하리라.

【훈】 심서(心緒)는 마음 주장이요, 기화(氣化)는 기운이  
 동하여 조화를 이룸이요, 건(健)은 건장함이다.

【석】 마음에 주장됨과 기운에 동화함이 순전 혼일한 즉  
 신지(神祇)가 보응하여 마음과 뜻이 광대하고 예용(禮容)  
 이 건중(健重)하여 그 천도에 당연한 이치를 살피며 그 인  
 민의 허튼 마음을 거두워서 교화가 못 사람에게 흡족하면  
 천운이 태평하여 만방이 비로소 편하리라.

명보안지의하나라  
 明輔安之意

보국안민 하는 뜻을 밝히니라.

## 제4장 明功成大業 명공성대업

### 공 이루는 큰 업을 밝힘

1 권명시거던 엄위시정하여 성숙기념하라 편우독념이  
 權名是擧 嚴威是正 誠瀟其念 便隅獨念  
 흑대흑소하고 유정유사하여 원근비지에 무유소정하면  
 或大或小 有正有私 遠近比至 無有所定  
 반향경념이 도귀불용이니 수도립덕은 무요전일이니  
 半向經念 都歸不用 修道立德 務要全一

전일불변이면 무유불성하리라  
 全一不變 無有不成

권세이름을 이 들진대 엄위를 이 정대히 하여 그 생  
 각을 정성하고 엄숙히 하라. 편벽한 모퉁이에서 홀  
 로 생각이 흑 크기도 하며 흑 작기도 하고 정대함도  
 있고 사사함도 있어서 멀고 가까운데 견주어 이르매  
 정한 바가 없으면 반향 경념하고, 생각함이 다 쓰지  
 못할데로 돌아가리니 도를 닦고 덕을 세우는 전일함  
 을 힘쓸지니 전일하여 변하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함  
 이 없으리라.

【훈】 권(權)은 큰 것이요, 엄위(嚴威)는 위의요, 정  
 (正)은 정숙한 것이요, 편우(便隅)는 편벽되어 한모  
 퉁이에 거하는 것이요, 흑대흑소(或大或小) 유정유  
 사(有正有私)는 향함이 정한 바 없음을 이룸이라.

【석】 큰 이름을 들고자 할진대 그 위의를 정숙히 하  
 며 그 생각을 정성스럽고, 한결 같이 하라. 편벽된 이  
 한모퉁이에 거하여 생각에 향함이 다 쓰지 못할 생각  
 이라고 고로 도를 닦고 덕을 세우는 근본은 생각이 전  
 일한데에 있느니라.

2 회피증민이 골우리욕하여 내퇴륜강하고 미행인선이요  
 噫彼蒸民 汨于利慾 乃頹倫綱 未行仁善  
 분분현나 | 도행패악일세 혁혁준인이 의방법준하여  
 紛紛玄拏 都行悖惡 赫赫俊人 義秉法遵  
 이대운정하느니 시불가거나 운유선정일새니라  
 以大運定 時不可期 運有先定

슬프다! 여러 백성이 이욕에 빠져서 이에 윤강을 무  
 너뜨리고 착함을 행하지 아니하고 분분히 현나함이  
 도무지 어그러지고 악함을 행할 뿐일새. 혁혁한 준  
 인이 의를 잡고 법을 쫓아서 써 대운을 정하느니 때  
 는 가히 기약지 못하나 운수는 먼저 정하였느니라.

【훈】 회피(噫彼)는 슬픈 뜻이요, 골(汨)은 편안함  
 뜻이요, 분분(紛紛)은 바쁜 뜻이요, 현나(玄拏)는 크  
 게하는 뜻이요, 혁혁(赫赫)은 고대한 뜻이요, 준인  
 (俊人)은 준수히 도를 이룬 사람이라.

【석】 못 사람이 이욕에 편이하여 윤강을 봉절하고  
 바쁘고 바쁘게 크게 함이 도무지 이 패악뿐이라. 고  
 로 고대히 도를 이룬 사람이 그 의리를 잡고 그 가르  
 치는 법을 쫓아서 그 큰 운수를 정하고자 하니 운수  
 정할 날을 가히 미리 알지 못할지나 뻑뻑이 이 운수  
 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랴.

<이어서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 경자년 인등기도입재봉행



봉령각 오영순 정위사

지난 2월 3일 (음 정월 10일) 10시 봉령각 (정위사 오영순)에서 1100여 명의 교인들이 동참하여 경자년 인등입재기도를 봉행하였다.

오영순 정위사의 집례로 모든 교인들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삼대원의 속속 성취를 발원하였다. 오영순 정위사는 설법을 통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최후의 말씀에 이르시길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곳에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인

등불을 밝히기를 기원해야 하며 무량광불 아미타불 부처님과 성덕군 선생님 순덕군 선생님을 앞에 등불을 밝히는 공덕이 무량하므로 금년 내내 안과태평하고 모든 소원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발원한다고 설법하였다.



### 정월기도 봉행



법회당 김승천 정위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31일(음. 정월 7일)부터 2월 6일(음 정월 13일)까지 7일 동안 법회당에서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655명의 교인들이 동참하여 성경신을 다해 일심동령으로 정월 수련기도를 봉행하였다.

맞이하는 새해에도 오직 『삼대원 성취』와 각 가정마다 가내 안과태평, 소원성취를 기원하였다.

기도종공(회향) 7일째 되는 날에는 동참하신 모든 교인들께 수기 소원 성취부와, 원양부 등

을 각각 나누어 주면서 참회 진언으로 기도 마무리하고 김승천 정위사의 설교와 김덕환 총무원장님의 덕담이 담긴 설법으로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다.



### 경자년 해맞이 행사

수강 199년 경자년 1월 1일 신도회 (회장 박남형) 주관으로 금병산 운수봉에서 남녘교인 150여 명이 참석하여 해맞이 행사를 봉행하였다.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 탓에 뜨는 해를 맞이할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으나 동쪽 하늘을 향해 새해의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고 하산하여 복지관에서 신도회가 제공한 떡만두국을 공양하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담소하며 경자년 새해를 시작하였다.



### 민족종교 학술대회 수운교 독립운동사 조명



지난 11월 28일(목)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민족종교협회의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한국민족종교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있었다. 본부에서는 총무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박재희 민족종교협의회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종교는 정면에서 일제와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였으나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이러한 위대한 사실조차 땅에 묻혀온 것에 분노를 느끼며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대일항쟁기 민족종교가 전개한 독립투쟁의 실상이 바르게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아울러 희생된 독립열사들의 애국심이 면면히 민족종교인과 국민들에게 계승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주제 발표는 송실대 성주현 교수의 천도교 항일독립운동 관련 한국외대 이숙화 교수의 대종교 항일 독립운동 관련, 중원대 김철수 교수의 보천교 항일독립운동 관련에 이어서 한국연 수석연구원 고병철 박사는 태극도와 수운교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수운교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해 첫째로 9명의 인물이 전개한 활동은 건국훈장 등의 공적조서에 담겨 있고 주로 3.1운동과 관련하여 권병덕 지사, 오복원, 김이걸, 최주억, 김찬호, 김충성, 김두화, 김병균, 변승욱 지사 등의 주요 공적조서 내용을 발표하고 둘째 1941년 김찬호 사건(철원)의 검사국 문서는 철원경찰서장과 강원도 경부가 경성지방법원 검사에게 발송한 것이고 판결문은 김찬호 외 24인의 치안유지법 위반혐의 예심 종결 내용을 소개하였다.

지금까지의 대내외적 자료 발굴이 쉽지 않은 평양 선교리 사건은 평양 선교리 경찰서와 대전 경찰서의 검거자료 그리고 사건 관련자 오무호, 정창모, 양근성, 강주희, 박하규, 이열호, 김영두, 김도성 변홍식 등의 9명에 대한 인물의 핵심어로 삼아 자료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1929년 5월 ‘상해임시정부사건’은 강원도 김화군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는데 1929년의 동아일보와 신민일보 등을 보면 당시 사건의 여파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사건이 강원도 김화군 수운교 중심의 ‘비밀결사대’ 또는 수운교인을 모아 결사대를 조직한 ‘조선공화 정치국 사건’ 등이 황해도와 평안도 등 수운교인 수천 명이 대전 탄동면 추목리 금병산 하에 이주할 당시에 발생했다는 점도 일제의 수운교 통제 조치와 관련해 연구가 필요함을 발표하고 사건의 경위 구성에 대해 상해 임시정부 정치국 밀사들이 폭탄, 권총, 선전문 등을 갖고 조선에 밀입하여 1928년 11월 이태 김화, 양구 등에서 군자금 모으고 동지를 모집하였다.

강원도 경찰부(현 도경찰국)는 김화 경찰서에 수사 본부를 설치하고 200여 명의 수사팀을 투입하여 수운교 관계자 100여 명과 전국각지에서 250명이 검거 투옥된 사실 등이 당시의 언론에 보도 되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외부자료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관련 자료를 발굴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 동정

## 정기이사회 개최

2월 20일 11시 본부 사무실에서 이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년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2019 세입세출 결산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이어서 임기 만료 이사 3명 중 2명의 이사를 중임키로 하고 이사 1명은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하고 이사장에 정기중 이사를 연임하기로 결의하였다.

## 법사회의 개최

지난해 12월 15일 11시 복지관 회의실에서 법사회의가 열렸다. 198(2019)년 세입 3억 5천만원과 세출 3억 6천만원의 결산내용을 심의하고 199(2020)년 일반회계 5억 5천만원의 세입과 세출 5억 5천만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 하반기 감사 실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에 걸쳐 하반기 정기 감사를 김상조 감리원장, 윤영진 부감리원장, 김광석 감사부장, 지재현 심리부장 등이 본부 사무실에서 하반기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다.

예산회계 집행사항 재산관리 및 사업진행사항, 교인관리 상태 등을 중점 감사하였으며 김상조 감리원장은 강평을 통해 교무계획 수립, 법사회의록 미비치, 포덕사업 미흡, 적극적 사업계획 미흡, 감사자료 제출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청하였다.

## 입춘기도 봉행

2월 4일(음 1, 11) 오전 10시 법회당에서 교인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입춘기도를 봉행하였다. 입춘날을 맞이해서 새해의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고 삼재 소멸을 위한 기도를 함께 봉행하며 새해에는 삼재팔난을 면하고 건강과 수명복록을 축원하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며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축원하였다.

## 산제 치성기도 봉행



1월 30일 오후 3시 금병산 산제단에서 총무원장을 비롯한 남녀교인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태화 경위사, 김승천 정위사, 오영순 정위사, 문제현 정필사, 이장성 선교사 등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경자년 새해 교인모두의 무사안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였다.



## 금병봉사단 정기총회

2월 9일 11시 금병봉사단 정기 총회가 복지관에서 있었다. 김옥현 총무의 사회로 명축분향과 삼경의례에 이어 감사보고(서면) 세입세출 결산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새해 사업계획도 순조로운 토의를 거쳐 승인되어 금년에도 공설묘지, 산제단, 천사님묘소 등의 제초관리도 작년처럼 봉사활동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경로잔치 및 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수운교 부녀회 정기총회

2월 6일 오전 10시 복지관에서 부녀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총무원장과 법사원장 그리고 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지현 부녀회 재무의 사회로 명축 분향과 삼경 의례에 이어 감사보고와 세입 세출 결산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어서 전임 김은택 회장의 임기 만료에 이어, 이날 새 임원 선출에는 이경례 학선군 부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경례 부녀회장은 당선인사에서 노력하는 자세로 성경신을 다해서 부녀회를 잘 이끌어 가겠으며 부녀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였다.

## 대구지부 이전



대구지부(지부장 남상곤)는 대구 동구 신암동 671-5번지 신암동 6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새로운 법당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위원 4명(삼원 부원장 사무국장)이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구지역을 방문하여 법당 건물을 물색하여 지난달 2월 19일 잔금을 치르고 내부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2일 부처님을 이운하고 이사를 마무리하였다. 내부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점안법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전염병이 심한 지역을 자주 방문하여 모든 일을 마무리한 추진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새 지부 주소는 대구시 동구 입석동 930-113 번지이다.

## 소방훈련

지난 11월 21일 대전 북부 소방서와 유성구청,

교육사령부, 수운교 본부 등 민관군 합동 소방훈련을 도솔천에서 실시하였다. 유사시 문화재를 보호하고 평상시 안전 점검들을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연례행사이다.



## 박우군 민종협 회장 별세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군 회장이 2월 23일 향년 92세로 별세하였다. 박회장은 2017년 4월 민종협 2대 회장에 취임하여 약 3년 동안 역임하였다. 고인은 평생을 천도교를 신앙하였으며, 천도교 총부 총무위원, 중앙감사, 원로위원, 신인간 주간, 선도사를 역임하였다. 박회장의 장례는 최근의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가족장으로 엄수되었다. 영결식은 천도교 의식으로 진행되었다.

24일 오후 9시, 천도교의 전통적인 영결식은 유가족과 천도교 정원포, 영등포 교구 교인들 30여 명의 참석하에 허태영 교인의 집례로 시작되었다. 영결식은 개식, 청수봉전, 개식삼고, 주문3회 병송, 약력소개, 위령문 낭독, 위령송 합창, 분향, 유가족 인사, 폐식 삼고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서종환 교인의 약력소개에 이어 박만해 도정의 위령문 낭독이 있었다.

위령문은 “일찍이 스승님께서 우주와 인간의 근본을 밝혀 주시어 모든 사람과 사물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 하나로 되어 있으므로 육신은 비록 없어지더라도 그 성령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길이 남아 자손과 후학의 성령과 합일하여 영원히 장생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의 슬픔을 이겨 나가려 한다”며 고인의 성령출세를 염원하고 인계극락(人界極樂)을 향수하길 빌었다. 25일 오전 9시에 발인하여 장지인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모셨다.

7대 종교를 비롯한 각계의 조문도 이어졌다.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을 비롯하여 7대 종교 중앙위원이 조문하였고, 민족종교 박재희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민족종교 회원교단 대표 및 이사들이 조문해 고인을 애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비롯하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인철 통일부 장관, 7대종교수장단, 민족종교 등 각계의 조화도 답지하였다.

### 감무원 신년하례식



수운교 제주특별자치도 감무원에서는 지난 2월 1일 수운교 신천지부에서 경자년 신년하례회를 거행하였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수운교 청정 봉사단에서 주관하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양원홍 감무원장은 하얀 쥐의 영특하고 부지런함처럼 우리 종단에서도 포교에도 노력하고 교인 상호 간에도 협조와 동참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한 해를 맞이하자고 인사말을 하였고, 이어 변문호 고문, 김옥산 단장이 인사말을 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하였으며 봉사단에선 국수와 선물을 참석한 교인들에게 제공하였다.

### 장애인협회지회장 취임



오형범광양지부장

오형범 광양지부장은 1월 20일 10시 제주도 지체 장애인 협회의 제주시 지회 제13대 지회장에 취임했다.

이 자리에는 교단 법사들을 비롯하여 지체 장애인 관계자, 도의원, 관계 단체장, 친목, 친지 등 100여 명의 축하 속에 취임식을 진행하였으며, 취임사에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지체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에 정진하여 제주시 지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을 했다.



### 화순지부 점안법회 봉행



화순지부 천법당 번와 및 불사를 마무리하여 수운강생 198년 11월 30일 총무원장과 법사원장, 본부임원 그리고 각 지부 지부장과 교인분들

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법회를 봉행하였다.



### 먹거리 장터 무료 국수 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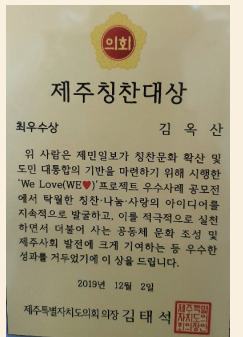


수운교 청정봉사단(김옥산 단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단원 39명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행사장을 찾은 자원봉사자 및 행사 관계자 2,000여 명에게 무료 국수 배식 봉사활동을 주관하여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였다.

### We LOVE 프로젝트 공모전 시상식



지난해 12월 2일 제민일보에서 주최하는 '2019 We LOVE 프로젝트 공모전 시상식'에서 김옥산 단장은 제주칭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강옥녀 지혜분과위원장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 일일국수집



수운교 청정봉사단(단장 김옥산)은 2월 12일 단원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사랑을 전하기 위한 일일국수집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청정봉사단에서는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12분에게 반찬배달 등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수운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수운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 이순일 단원 표창 수상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연인원 180명이 수운교 봉개지부에서 '제10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배추 4천포기에 희망을 담아 시설 어르신 및 독거 노

인과 장애인 시설에 나눠드렸고, 12월 17일에는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주관 '2019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에서 이순일 단원이 제주시자원봉사센터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우리는 하나 천정의 맑은 기운 온누리에...

**수운교청정봉사단 일일 국수**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음 1월 19일> 오전10시 - 오후5시      장소 : 아렌피오레컨벤션 1층

주최 : 수운교청정봉사단      후원 : 수운교제주특별자치도 감무원

### 계·시·관

상반기 법회안내

〈문의 ☎ (042) 861-1771〉

● 초하루, 보름기도	매월 음 1일,15일	오전 7시 20분	3 단
● 백일치성기도	매월 음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수련기도	매월 음 1일~7일	오후 2시	봉령각
● 법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당
● 삼일절위령재일	양 3월 1일	오전 10시	법회당
● 신장재일	음 2월 7일	오후 3시	광덕문(남문)
● 용왕기도(부녀회)	음 3월 3일		
● 조왕재일	음 3월 29일	오후 3시	장 실
● 용왕재일	음 4월 3일	오후 3시	장 실
● 산왕재일	음 4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 교주탄강	음 4월 15일	오전 10시	도솔천
● 위령재일	음 4월 16일	오전 10시	법회당
● 인등백일기도	음 4월 20일	오전 10시	봉령각
● 공설묘지제향제	음 5월 5일	오전 10시	공설묘지
● 칠석기도	음 7월1일~7일	오후 5시	도솔천
● 백중위령재일	음 7월 15일	오전 10시	법회당

경전감상

## 노자 도덕경 76장

유약한 것이 굳센 것을 항상 이기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유약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굳고 강해 진다네  
 만물 초목도 처음 나왔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지만  
 죽을 때가 되면 말라 딱딱해지네  
 그러므로 굳고 강한 자는  
 죽어가는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자는  
 살아나는 무리라네  
 그래서 군대도 강하면 이길 수 없고  
 나무도 강하면 잘려서 쓰이게 되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서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서게 되네



## 회사금 명단

- ▶ 현금 회사
    - 100만원 : 최현규, 최현두, 최창식, 최성수, 나동섭
    - 70만원 : 나예주
    - 30만원 : 나준섭, 정규섭
    - 20만원 : 박신규, 김영호, 문충식, 나은지, 박복희(신천지부)
    - 10만원 : 안금순, 안상원, 홍상묵
  - ▶ 화환
    - 탄동농협, 수산지부, 일도지부, 흥로지부, 광양지부, 조천지부, 구업지부, 안덕지부, 한동지부, 성산지부, 봉개지부, 화순지부, 신천지부, 본부신도회, 본부부녀회, 금병봉사단, 청정봉사단, 민족종교협의회
  - ▶ 물품 회사
    - 강순재(수산지부), 석영일(명원타운), 예진이네농장(제주), 문춘순(제주), 양홍익(제주), 한경숙(제주), 현순자(제주), 허혜원, 윤옥희, 최춘자, 이미경, 백용란, 유희자, 안정숙, 민송순, 이장성, 강순애, 양설자, 강수연, 유만준
- ※ 금병산 산제기도 교인 일동 야외용 엠프

## 공·기도비를 납부합시다

공·기도비(7만원)는 수운교 교헌에 의하여  
 매년 음력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납부하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문의 ☎(042) 861-1771〉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새마을금고 9002-1796-7840-6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교인은 소속지부에 납부바랍니다.

## 포덕성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포덕성금은 3대원(포덕천하, 강제창생, 보국안민) 성취를 위해  
 교화사업을 하기 위한 성금입니다. 3대원 속득 성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면 됩니다.

농협 453116-51-062203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장학성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장학성금은 수운교인 또는 수운교와 인연이 있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금입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453116-51-073795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   |  |  |
|---|--|--|
| 신동구 봉령군대인(처 조수복),<br>유재호 봉령군대인(처 이선후),<br>문경생 봉령군대인(자 고운섭),<br>박기용 봉령군대인(자 박창석),<br>홍덕기 불광주(자 홍석하),<br>김재연 도광주(부 김용덕),<br>한동훈 법도사(자 한우진),<br>장창덕 학선군부인(처 조정자),<br>조태완 학선군부인(자 조성루),<br>양순호 학선군부인(자 백경수),<br>윤정생 학선군부인(자 임남규),<br>태문희 학선군부인(자 양길철),<br>강계화 학선군부인(자 박창석), | 이남규 봉령군대인(처 박구만),<br>오테인 봉령군대인(처 현계하),<br>박만용 봉령군대인(자 박상진),<br>신재덕 봉령군대인(자 신원창),<br>조진우 불광주(녀 조가연),<br>배선영 도도사(처 김미란),<br>김홍식 도성존(자 김현일),<br>양남순 학선군부인(자 이원규),<br>김복동 학선군부인(자 장보익),<br>양순성 학선군부인(자 김우경),<br>홍남근 학선군부인(자 양수인),<br>문창생 학선군부인(자 박철홍),<br>유종순 학선군부인(손 오춘수) | 이중구 봉령군대인(처 이희분),<br>양후은 봉령군대인(처 박순일),<br>변문호 봉령군대인(자 변동만),<br>김지택 창조자(처 이순녀),<br>고재남 천광주(자 고정현),<br>백홍민 불도사(처 문병열),<br>박덕옥 학선군부인(자 박경태),<br>김덕실 학선군부인(자 나완일),<br>박선옥 학선군부인(자 고용구),<br>손달순 학선군부인(자부 유영옥),<br>이덕오 학선군부인(자 김창흠),<br>문을남 학선군부인(자 김방신) |
|---|--|--|

# 경

## 제40대 양원홍 총무원장 취임

# 축

김석주 법사원장, 윤영진 감리원장

- 수운교 임직원 일동 -